



(주)일진파워

094820 | KOSDAQ | 기계장비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일시 : 2014. 03. 28 |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11-26번지 본사 기술연수원 대강당

Executive Summary

▶ 일진파워는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이사의 보수한도를 전년도 17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증대하는 의안을 상정했다. 이사의 수가 전년 대비 1명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적 역시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보수 한도를 대폭 증대하는 것으로, 이사 보수 증대로 인해 적정 보수 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사 보수와 실적의 연계 문제와 최대주주인 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인한 주주간 불평등 등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다.

Agenda & Recommendations

No	의안	이사회	네비스탁
제1호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50원		
제2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반대
제3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의안 세부 내역]

▶ 제1호 의안 : 제24기 (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예정 내용 :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50원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3)	6(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7억원	60억원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억원	1억원

[제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약 29억원 감소하여 총 자산은 약 1,098억원 수준이며 부채가 약 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4억원 감소했으며, 자본 총계는 전년 대비 약 15억원 증가해 587억원 달성-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80억원 감소해 1,053억원을 달성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6억원 증가해 63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 이익 역시 전년 대비 39억원 가량 증가해 44억원 달성- 결산배당은 주당 150원이며 배당 총액은 약 21억원-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 제안		

Discussion

Analysis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다.

Vote Recommendation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안함.

-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보수 한도는 총 60억원으로 전년도 보수 한도 17억원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수준. 이사 정원은 전년도 7명(사외이사 3명 포함)에서 6명(사외이사 1명 포함)으로 감소하였으며, 실적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증가 수준이 미미
-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사 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실적과 이사 보수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최대주주인 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은 주주간 불평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실적과 연계된 적정 이사 보수 수준을 정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가 제안한 보수 한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권고
- 감사 보수 한도는 전년도 동일하게 1명에 대해 1억원으로 상정되었으므로 감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찬성 의견을 제안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수의 책정과 지급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

Discussion

Proposal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3)	6(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7억원	60억원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1억원	1억원

실적과 연계된 이사 보수 한도 책정 필요

▶ 이사 보수 지급 체계의 불투명

일진파워의 최근 사업연도의 이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7 (3)	6 (2)	6 (1)
주총승인금액(천원)	1,500,000	1,700,000	6,00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1,225,916	716,166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이사회는 보수 한도를 15억원에서 17억원으로, 그리고 17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대하고자 한다. 60억원은 전년 보수 한도 17억원의 3.5배 수준으로 상당한 증가 수준이다. 게다가 이사의 수는 7명에서 6명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2년에 집행 실적을 보면 15억원의 보수 한도 가운데 12.3억원을 집행해 약 82%의 집행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 보수 한도가 60억원으로 증대될 경우 이사 보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물론 경영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가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요 경영진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일진파워의 경우 실적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당기순이익 (천원)		11,978,265	2,075,856	4,746,732	526,365
이사 수		6(2)	6(2)	6(2)	7(3)
이사 보수 (천원)	총액	509,587	864,916	936,708	1,225,916
	1인당	84,931	147,077	156,118	175,131
	사내이사 1인당	120,322	별도 표기 없음	224,277	290,954

위의 표에서와 같이 2009년부터 실적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사내이사의 보수는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해 왔다. 사실상 실적과 이사 보수의 상관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2012년 말까지 사내이사 4명 중 3명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 이상업 최대주주와 이상업의 아들인 이광섭, 그리고 이상업과 형제관계인 이상배가 모두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다. (이상배는 2012년 1분기까지 재직)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업 이사와 이광섭 이사는 계속해서 재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이사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경영권을 이용해 과도하게 회사의 이익을 분배 받음으로써 주주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등기이사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아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이사가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고 역량있는 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이사 보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경우 이사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기 어려우며, 특히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경영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할 경우 이사 보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더욱이 이광섭 대표이사는 부친인 이상업 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분을 증여받고 장내에서 매수하면서 일진파워를 승계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 만약 과도한 이사 보수가 이러한 경영권 승계에 활용된다면, 이는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분배 받음으로써 특정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반대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9년 일진파워는 대주주에게는 주당 200원, 소액주주에게는 220원의 배당을 지급했으며 2010년에는 대주주에게 240원, 소액주주에게 260원의 배당을 지급했으나, 2011년에는 대주주에게 120원을, 그리고 소액주주에게는 130원의 배당을 지급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배당이 감소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주주는 무배당을, 그리고 소액주주에게는 130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물론 실적 감소에 책임을 지고 차등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기간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이사에 대한 보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등배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실적 감소로 인해 소액주주 배당은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정작 실적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사 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 보수 책정의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사 보수 책정에 대한 분명한 체계와 절차, 그리고 공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60억원으로 대폭 증대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의 보수는 주주가 임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와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 수와 보수한도액, 그리고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2	2013	2014
감사의 수	1	1	1
주총승인금액(천원)	100,000	100,000	100,000
실제 지급액 (단위:천원)	30,000	22,527 (9월말 기준)	(예정)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보수 한도액과 실제 지급액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제안한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네비스탁의 독립적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의견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는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의 권고 및 신용평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의 내용은 네비스탁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네비스탁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네비스탁은 본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자료, 정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PROXY ADVISORY REPORT를 포함한 네비스탁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네비스탁의 소유입니다.

㈜네비스탁

www.navistock.com